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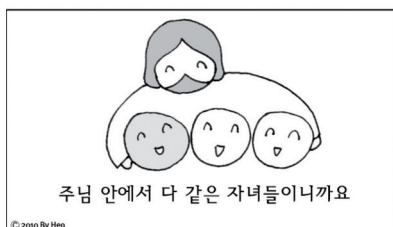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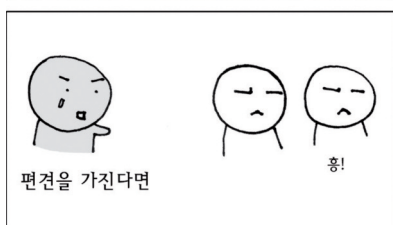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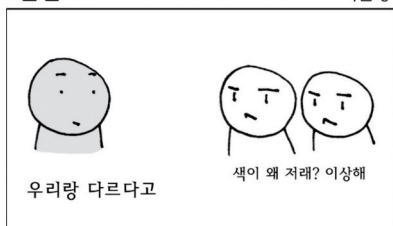
지난 23일 토요일, 파란 하늘, 아름다운 가을 하늘 아래 '다문화 사랑 걷기대회'가 진행되었다. 작년에는 부모님과 동참하지 않은 중등부 학생들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몸으로 체험하는 행복한 시간을 가졌었는데, 올해는 사방이 뿔려있는 걷기대회의 한 길 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행복한 부르심을 따라 중등부 가족들과 함께 노래와 율동을 준비하게 되었다. 노래도 서툴고, 음정도 서툴고, 우리의 모든 몸짓이 부족한 모습이었음에도, 중등부 아이들의 찬양을 들으며 박수로, 미소로, 손짓으로, 간식으로 격려를 보내주시는 목사님, 성도님들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찬양 속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한 가족인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다문

화 가정 가족들이 지나갈 때는 더 큰 소리로 축하하며 찬양했고 그들과의 귀한 만남을 주시고 함께 걷게 하신 하나님께 깊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걷기대회 찬양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양재천 속에 헤엄치고 있는 큰 물고기를 보았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가을 하늘 아래서 다문화 가족들도, 주님의교회 가족들도, 물고기 가족들도 감사와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주님의교회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 중등부 학생들은 큰 기쁨과 사랑과 감사와 감격을 경험했다고 고백한다. 우리 아이들의 평생의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길, 사랑과 나눔과 생명의 길,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발걸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려본다.

〈중등부 임경순 전도사〉

편견

허윤정



단풍을 보면 왜 가슴이 나도 모르게 불타는 걸까?



우리들에게 가을은 어떤 모습으로 오고 있는 지, 가만히 창 너머 구름 떠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들에게 가을은 무슨 소리로 오고 있는 지 매미 떠난 자리 세(貴)를 얻어 울고 있는 귀뚜라미소리에 귀 기울여 봅니다.

무엇보다 맛있게 싶은 가을은 가진 것이 없어도 낮은 곳에서 서로 바라보는 사랑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가을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깊어가는 가을이 아쉬워 내 인생의 한 잎새와 또 여러 잎새가 서로 안은 이 세상 소리 없이 만나 마음 위로 떨어지면 가슴에서 피어나는 꽃잎처럼 우리도 때로는 낙엽이 될까요.. 이런 가을도 괜찮지 않나요. 삶은 때로는 우리들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서있는 이 가을 행복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저 가을이라는 것만으로도

충분 합니다.

제법 차가운 공기의 흐름을 느끼면서도 지난 주만해도 이제 겨우 가을이 오는가 싶었는데 가을은 멀리 달아나 버리기라도 한 듯 색을 바래는 나뭇잎들이 단풍이 되기도 전에 낙엽이 되어 떨어져 버리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10월 26일(화) 늘푸른대학 어르신들과 광릉 수목원 가을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단아하지만 깨끗한 단풍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렇게 이쁜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이렇게 고운 단풍잎이 되었을까?' 하는 마음에 어르신들을 바라보니 즐거워하시는 마음에 우리들 마음까지 빨갛게 물들어왔습니다. 아름다운 단풍을 보며 왜 아릿한 것이었는지 이 순간이 비로소 가을이었음을 실감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어르신들. 인생의 소중한 뒤편길에서 나 자신을 찾아다니시는 길마다 어르신들의 호호소리 가득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르신들. 그 추억진 시간 속에서 함께한 저희들 멋진 단풍의 조각들을 보았습니다.

〈신형섭 기자〉



함글함글의 기사를 모집합니다.

문의: 하태원 편집장 T.019.313.3073

전화신앙 상담 ☎ 416-5183

화 ~ 토요일 : 오전 9 - 12시, 오후 1 - 5시 (토요일은 오전만)



6년 쯤 된 일인 것 같습니다. 집 근처 기독교 서점에 갔다가 우연히 사게 된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100페이지 정도 읽었을 때, 백혈병으로 투병 중이던 선배 언니의 중학생 아들이 천국에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겐 기막힌 슬픔을 당한 분들을 위로할 만한 능력이 없었기에 읽고 있던 책이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 조문 길에 언니 옆에 살짝 두고 왔습니다. 어느 날 그 책을 읽게 되었는데, 책을 통해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노라고 했습니다. 비록 저는 책을 끝까지 읽지 못하였지만 그 뒤로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슬퍼하는 분들에게 그 책을 선물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오늘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제럴드 시처의 <하나님 앞에서 울다>입니다. 저자는 가족과 함께 여행하던 중 맞은편에서 운전해오던 음주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그들이 타고 있던 차와 충돌하는 바람에 이 사고로 어머니와 아내와 딸을 그 자리에서 잃었습니다.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기막히고 엄청난 비극적 사건이 안겨준 상실이었습니다. 저자는 자신이 겪은 상실의 경험을 통해 상실이 누구에게나 있는 보편적인 경험인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를 통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에 대하여 쓰고 있습니다. 책을 통해 우리는 그가 겪은 길을 따라가면서도 그의 개인적인 경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상실을 겪은 다른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고 그 속에서 이들의 접점을 발견하며 상실에 대해 더욱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책은 상실이라는 지독한 고통과 슬픔의 사건을 겪으며 얻게 된 영혼의 성숙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갑작스럽게 큰 슬픔을 당하게 된 분들에게 더없이 큰 위로가 되어줄 책입니다. 그뿐 아니라 인생길 가운데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상실을 경험하게 될 우리 모두에게도 그 때를 바르게 준비시켜 줄 귀한 책이기도 합니다.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박윤정 기자〉

|오늘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 로마서 12 : 2

통 권 제 273호
발행인 _ 담임목사 박원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10년 10월 31일

함글함글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과학과 성령의 대화’를 이끄는 종교개혁

1. 슬로건으로 살펴보는 종교개혁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은 16세기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5대 슬로건입니다. 이는 그 당시 종교개혁의 정체성을 잘 나타내 줍니다. 이중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을 꼽으려면 당연히 ‘오직 성경’입니다. 신중심의 사회에서 교황을 비롯한 전통권력의 부패에 맞서기 위해서는 성경의 권위가 그 근거와 힘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런 말씀 중심의 개혁은 너무나 탁월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성령’이 빠져 있는 것에는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성령은 성령의 조명하에서만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당시 종교개혁의 선봉에 섰던 주역들이 ‘오직 성령’을 의도적으로 빼버리거나 성령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우선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슬로건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면 이 시대에는 작금의 상황을 반영하는 슬로건이 필요합니다.

2. ‘과학의 시대’를 여는 종교개혁

16세기 종교개혁은 ‘과학의 시대’를 여는 조명탄과 같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물론 르네상스, 종교개혁, 과학혁명 등은 어느 누군가의 독주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 관계를 인과적으로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종교개혁은 종교와 신앙의 혁신운동이었으나, 정치·경제·사회 각 분야에서도 세계적으로 크게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중세시대 ‘마술과 미신’에 붙잡혀 있던 인간들의 사고에 영적인 해방을 안겨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로써 근대의 문이 열립니다. 근대인을 ‘중세의 억압’에서 진정으로 해방시킨 것은 자연과학이 아니라 세계에 대한 합리적·과학적 태도를 표출한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습니다. 이런 종교개혁의 정신이 있었기에 근대 과학은 빛을 발할 수 있었습니다. 과학은 철저하게 객관적이어야 하고, 논리적이어야 하고, 분석적이어야 하고, 비판적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분리의 정신입니다. 과학은 분리의 논리입니다. 주체와 객체를 분리합니다. 논리와 감정을 분리합니다. 정신과 육체를 분리합니다. 과학과 신학을 분리합니다. 사람과 자연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것을 잘못이며 오류라고 말합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정죄합니다. 주관적이면 믿을 수 없습니다. 감정적이면 믿을 수 없습니다. 영적이면 믿을 수 없습니다.

3. ‘성령과 과학의 대화’를 이끄는 종교개혁

오늘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 또는 과제는 ‘나뉘어진 신앙’입니다. 신앙과 삶이 나뉘어져 있고, 교회와 사회가 나뉘어져 있고, 학생들에게는 교회와 학교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는 ‘오직’이라는 말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데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오직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는 있고 둘은 없어집니다. 포기할 수 없는 하나이기에 나머지는 다 틀렸다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참된 오직의 정신’은 나만의 것을 고집하는 자세가 아니라 함께 하고 조화를 이루는 정신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일체로 운행하십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니며,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지만, 혼합되거나 혼란되지 않고 오직 하나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외치기에 성부와 성령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종교개혁의 주된 슬로건이었던 ‘오직 성경’도 ‘오직 성령’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직 성령’ 안에서 더 온전해 집니다. 같은 원리로 ‘성령’도 ‘과학’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학’도 ‘성령’과 분리될 필요가 없습니다. 어느 한쪽이 교만에 빠져 다른 것을 배척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아인슈타인은 다음과 같은 멋진 고백을 남겼습니다.

“과학은 진리와 이해를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에 의해 창조된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의 원천은 종교의 영역으로부터 다가온다. 여기에 신앙이 속해있다. 존재의 세상에 유효한 규칙들이란 이성적이며, 이성에 의해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그러한 심오한 신앙 없는 순수한 과학자를 생각할 수 없다. 종교 없는 과학은 지체 부자유 과학 없는 종교는 시각 장애인이다.”

여기서 아인슈타인은 분명히 말합니다. 과학자의 모든 열정과 헌신은 신앙에서 다가오는 것이며, 과학은 결코 종교와 대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분리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진정한 과학자는 신앙인이어야 하고, 진정한 신앙인 역시도 과학자이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분리의 정신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온전한 하나됨을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필요한 슬로건은 ‘과학과 성령의 대화’입니다. 그 대화를 이끄는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위한 발걸음에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담임목사 박원호>

하나님의 나라 위해 헌신하는
알곡 공동체



1. 체계적인 말씀사역
2. 선교 공동체로서의 소그룹활성화
3. 훈련을 통한 하나님 나라 백성만들기
4. 교회 지원과 개척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
5. 목적에 따른 다양한 예배
6. 온전한 신앙을 추구하는 교회 교육과 청소년 집중 사역
7. 통합적 환경 복지 사역

주간 목회력

- 11.7 (주일) 성찬주일
새가족 양육 시작
- 11.13 (토) 북한선교 바자회
- 11.14 (주일) 수능생을 위한 축복기도 (4부예배시)

<개척교회준비기도회>
매주 목요일 / 오후8시 (소예배실)

추수감사절 쌀 나눔행사

풍요롭고 아름다운 계절에 서로의 따스함과 투명하게 이어있는 예쁜 무지개빛 마음의 끈을 이어갑니다. 지난 10.17 추수감사주일에 쌀쌀한 날씨 속에 겨울을 나실 분들과 기관에 우리들의 작은 정성을 보내기 위한 쌀나눔 행사를 가졌습니다.



- 다문화가정 걷기대회/간증/북한선교바자회 2면
- 학원선교사역팀/사막에서 피는 백합/싱글매칭 3면
- 걷기대회 중등부 참여후기/늘푸른대학 가을나들이 4면

* 우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친환경적 다문화사랑 걷기대회가 2년째 열려

_송파 하남시에 거주하는 150명 다문화가족과 660명 성도참여



지난 10월 23일 정신여고운동장에서 제2회 다문화사랑 걷기대회가 열렸다.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다문화 가정의 한국적응, 교육, 취업등 다양한 과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교회 주최 걷기대회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선교와 관심증진, 인식변화와 지원을 위해 송파구와 하남시에 거주하는 150명의 다문화가족과 660명의 성도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양재천, 영동4교, 왕복 8km구간을 함께 걸으면서, 먼나라에서 이곳 한국으로와 살아가는 다문화 가정의 어려움을 생각해 보고, 맑은 가을 하늘의 싱그러움에 모두 하나가 되었다.

또, 행사 전에는 다문화사진전, 풍물놀이,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 의료 선교팀의 건강검진이 있었고, 이어 열린 3부 행사는 최영인집사의 사회로 중국,베트남 다문화가족의 찬송, 송정미 초청찬양과 다문화가정 성금전달, 행운권추첨이 있었다.

이번 걷기대회는 대회 홍보를 위해 주일주보에 삽지를 인쇄하지 않았고, 현수막을 차기대회에서 재사용 가능하게 하였으며 행사 시설물 설치를 최소화하여 친환경적 행사가 되었다. 특히 이번 행사를 통해서 참가자들은 교회는 한 몸이라는 것을 느꼈고, 어른부터 아이까지 각각의 성실함이 모여 하나의 큰일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윤성진 안수집사〉

습관적인 신앙인은 아닌지 되돌아볼 기회를 주신 하나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니! 이게 뭐야? 웬 소금이지?” 앞집 아저씨의 짜증스러운 목소리에 지난 밤 상앗집에 다녀온 남편을 문 앞에 붙잡아 두고 내가 뿌렸던 소금 생각에 가슴이 찢렸습니다. 저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점을 보고 동네 보살에게 모든 것을 의논하는 가정에서 자라며, 하나님은 전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대학 시절에도,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점치러 다니며 남편에게 부적도 넣어주고 부정 타지 않게 소금을 뿌리는 것이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저의 어머니는 만찔린 저를 마치 친구처럼 가깝게 의지하며 포근한 사랑을 주셨습니다. 94년 2월 목에 무엇이 걸리는 것 같다고 병원에 가신 어머니는 위암 재발 진단에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하던 의사가 도중에 나와서 식도와 위에 암세포가 퍼져서 수술이 힘들다고 했을 때 저희 가족은 절망하였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는 산에 가서 기도하고 수술당일에는 새벽에 다니고 있던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면서 수술이 잘 되길 기원했습니다. 그런데 절을 하는 제 입에선 “하나님!! 하나님!!”이 자꾸 되뇌어 지기만 했습니다. 이상한 경험이었지만 인간은 가장 절박한 순간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되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신유 은사를 가진 권사님의 기도도 받았는데, 그 권사님은 우리 온 가족의 마음의 암까지 치료 하셨습니다. 마지막 임종 하실 때 환하게 미소 짓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까지 했습니다. 엄마의 죽음을 통해 친정식구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보잘 것 없는 저희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해 저희 식구는 영국 아버님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장로교의 본산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아버님에 시는 한인 가정은 90% 이상인 스물 대여섯 가정이 모두 신학을 하는 목사님 가정이었습니다. 많은 목사님, 사모님들과의 교제를 통해 늦게 시작한 믿음 생활에 가정교사를 붙여주시고 성경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삼성동으로 이사 오면서 시동생 가정인 십여년 전부터 섬기고 있는 주님의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을 경험하기를 희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라”는 목사님의 설교가 가슴에 와 닿았고, 학교 강당에서 예배를 시작한 교회정신에 감동하여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등록과 동시에 새가족양육을 받게 되었는데 같이 양육을 받은 새가족들과 양육리더의 도움은 서툰 교회생활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특히 저의 양육리더 권사님은 마치 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 실제 믿음 생활이나 교회에서 겪었던 문제와 어려움에 해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분 같았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등록과 동시에 겨자씨 모임에 바로 참여하게 되는 기회가 주어졌고, 겨자씨의 믿음의 선배들은 저희 가정을 따뜻하게 인도 하셨습니다. 양육과정을 마치며 저희부부는 새가족양육시간에 간식 봉사를 담당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왜 하인들이 하는 일을 하느냐”는 아이들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처음 으로 하는 간식봉사는 저희 부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매주 간식을 대접하면서 4주 동안의 교육을 통해 새로이 교회를 알아가는 새가족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조그만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간증문을 정리하며 예수님을 만난 지 만 16년이 넘어가면서 습관적인 신앙인은 아닌지 겸허하게 되돌아볼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 봉사한답시고 말씀과 기도가 부족한 저를 발견하곤 합니다. 항상 섬김을 받기만 하는 데 익숙했던 저희 부부에게 하나님은 이제 너희도 섬길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는 저에게 교회 사경회 선교사님을 통해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또 한번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셨답니다.

〈6교구 최진선집사〉

2010 북한선교를 위한 바자회 _2010. 11. 13 (토) 오전10시~오후3시/정신여중고 체육관 및 운동장

북한 선교 바자회를 나눔과 만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010년 11월13일 토요일 오전10시부터 오후3시까지 정신여중고 체육관과 그 주변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 그리고 이웃과의 만남이 가득하기를 기대합니다.

각 교구별로 약 한 달여 기간동안 물품을 기증받고 있으며 여러 성도님들의 도움으로 그 물품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번에 바자회 쿠폰을 만들어 연말에 있을 VIP전도를 위해서 사용하

고자 판매하려고 합니다. 바자회에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바자회는 각 여전도회에서 준비한 풍성한 먹거리와 농어촌교회와 함께하는 직거래장터 그리고 권사회에서 준비하는 김치 등 다양한 물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회라 최수중집사님 가정에서 기증한 코너를 따로 만들어 판매할 예정이며 산지 직송 한우(안성맞춤 1+)와 4주전에 직접담근 오미자액기스, 무항생제 달걀, JR여성복(80% off)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바자회의 수익금은 국내 하나원을 나가게 되는 탈북자들에게 생필품을 전해주고 중국 연변에서 사역하시는 우리교회 협력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와 북한에 떡국 떡을 1톤 정도 보낼 예정입니다. 또한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식량을 구하는 이들에게 거할 처소를 마련하는 일에 일부 도움을 줄 예정입니다.

이제 한가지 남은 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바자회 당일에 참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참여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 학원선교사역팀 야외예배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딤후1:12)
지난 10월 19일 맑은 날씨와 더불어 오늘은 감사한 날! 오늘은 행복한 날!

박혜성 목사님의 선창에 어머니들이 큰 소리로 복창하고 목사님의 기도로 학원선교 정신여고 기도 어머니, 정신여중 사랑 어머니 60명이 청남대로 향했다. 마냥 즐겁고 설레는 마음으로 밤과 계란을 삶아 소풍가던 학창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었다. 황금색 누런 들판에 가을걷이가 한창인 모습들이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 풍요롭게 했다. 소곤소곤 이야깃거리를 퍼우느라 시간가는 줄도 모르는데, 버스는 이미 목적지인 충북 청원군 문의면 청남대 매표소 정류장에 도착했다. 점심식사 후 다시 버스에 올라 20분 동안 길 가장자

리에 하늘거리는 코스모스가 만발한 대청호반을 가르며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청남대는 남쪽에 있는 청와대. 1983년부터 대통령의 공식별장으로 이용하던 곳으로 자연생태계도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팀원 전체는 넓은 잔디에 둥근 원을 만들고, 복음성가를 부르며 짝을 지어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한 후 허깅으로 축복하였다. 황정매권사 인도로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체조로 몸을 풀고, 아름다운 자연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 후 박혜성 목사는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막5:34)라는 설교 말씀에 일동들은 열두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간절하게 주님을 만났던 심정으로 “주의 옷자락 잡고 치유되게 하소서 이 질그릇 같은 인생 주의 옷자락 잡고 구원 얻게 하소서 주님의 옷자락으로 십자가 옷자락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는 주를 일평생 찬양하게 하소서”를 애송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합동하였다. 주님께서 주신 기도 어머니, 사랑 어머니 사명을 감사하며 감당하시라는 권면의 말씀과 축도로

예배를 드렸다. 2부 순서로 1시간코스:본관-오각정-그늘집 (우리나라 지도모양의대청호 전망) 2시간코스:호반산책로-양어장-본관-오각정-그늘집-대통령광장-초가정
팀원들과 서로 격려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주님! 이 가을의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훈훈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정신학원 딸들에게 기도와 사랑으로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지게 하옵소서.

〈학원선교 박경숙 집사〉



사막에서 피는 백합

— 장애를 가진 아이나 그렇지 않은 아이나 아이를 기르는 기쁨은 동일합니다.

본교회 청년부의 문선경 자매와 정신여고 졸업생인 김경선 자매의 ‘작품전시회’가 정신여고 현관에서 지난 25일부터 30일까지 중고 재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촐하게 열렸다. 이들은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든 상태에서 그림을 시작하여 온갖 어려움을 견뎌내고 자신의 뜻을 이뤄낸 기적의 백합꽃이다.

“선경이가 천안의 나사렛대학교를 다니면서 기숙사에서 혼자 생활하겠다고 했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자신이 혼자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런데 혼자 견뎌내며 생활을 해냈어요.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믿었습니다. 장애는 불편함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선경이가 무엇이든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하라고 했어요. 얼마후 송파구구민화관에서 그림을 그린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붓잡기가 힘들었



어요. 그런데 나중에 붓을 잡고 두 달 정도 노력한 다음 하나의 작품을 완성했어요. 저는 선경이가 주님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젊은 부모님들에게 말하고 싶었어요. 장애를 가진 아이나 그렇지 않은 아이나 아이를 기르는 기쁨은 동일하다고요” 선경이 어머니 최경희 집사는 연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며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았다.



한편 김 경선 자매의 어머니인 김양원 집사는 “경선이가 큰 무렵증으로 붓을 잡거나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스케치를 비롯하여 형태를 잡아갈 때 하나의 작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했습니다. 우리 애도 할 수 있다는 기쁨의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이 땅의 장애아를 지닌 부모에게도 마음에 아이 기르는 기쁨을 느끼게 해달라고요.”

우리교회의 자랑 싱글매칭학교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을 돕고자 시작한 사역이 어느덧 4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번4기에는 10월2일부터 10월23일까지 남녀13쌍이 참여하여 하나님보시기에 심히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4기를 마치고나서 매칭결과는 7쌍이 탄생했습니다. 앞으로 한달동안 서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인지 고려하며 교제하는 공식커플이 되었답니다. 두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보기도해주세요. 싱글매칭 프로그램의 내용을 사진으로 소개해드립니다. 〈공광승 목사〉



〈사진1〉 자기소개
〈사진2〉 검단산 정산에서
〈사진3〉 검단산 하산

포크댄스시간 〈사진4〉
담임목사님의 격려시간 〈사진5〉
커플 기도 〈사진6〉

